제11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5년 10월 31일(금)
14:00~16:0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주제발표】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종합토론】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이철재(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군사안보연구소장)

포럼기획: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작성책임:서진아 학예연구사(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11회 KWO 나지포럼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제11회 KWO 나지포럼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일시 : 2025년 10월 31일(금) 14:0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3:30~14: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식	14:00~14:10	• 개회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주제발표	14:10~14:30	【사회】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발제】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주제】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종합토론	14:30~15:20	【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이철재(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군사안보연구소장)
	15:20~15:3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5:30~15:40	기념촬영
리 셉 션	15:40~16:00	환 담
폐 회	16:00	폐회 선언

〈목 차〉

【주제발표】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 박원곤 ……7

【종합토론】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21

신석호(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23

이철재(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군사안보연구소장) ……27

다자토론 ……29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박 원 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TOGETHER. TOMORROW. EWHA


APEC의 의미
TOGETHER. TOMORROW. EWHA
2

APEC 개관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정식 명칭**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설립 연도**
  - 1989년, 밥 호크 호주 총리 제안
- **배경**
  - 당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이에 대응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대두
  - 호크 총리는 자유무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호주의 미래가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 중국의 국제사회 참여(cf.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세계경제질서에 시장경제국가로 참여)
  - 호크 총리의 제안으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경제각료회의가 개최되어 APEC이 공식 출범

APEC 개관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목적**
  -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
    - APEC의 주요 목적은 아·태 공동체 달성이 장기 비전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역내 규제와 표준 조율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지원
- **성격**
  - 비구속적·자발적 협의체 (21개 회원경제체)
  - APEC은 '국가(country)'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참가 자격이 부여
    - 예) 대만은 "Chinese Taipei", 홍콩은 "Hong Kong, China"로 표기
- **주요 협력 분야**
  -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

APEC 회원 및 회의 구조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회원국(21개 경제체)**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중화타이베이, 태국, 미국, 베트남
- **주요 회의**
  -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1993년부터 매년 개최
  -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APEC 기업자문회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s) 운영
- **합의 사항**
  - 2020년 푸트라자야 비전 2040 (Putrajaya Vision 2040):
    - "우리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
    - ① 무역·투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 ② 혁신·디지털 경제: 디지털 인프라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데이터 흐름 촉진
    - ③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여성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참여 확대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일정:** 2025년 10월 31일 - 11월 1일 (경주)
- **주제:** "지속가능한 내일 만들기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3대 우선과제**
  - ① Connect - 공급망·인적교류 강화
  - ② Innovate - 디지털·AI 혁신, 중소기업 역량 강화
  - ③ Prosper - 지속가능·포용 성장, 녹색전환(BCG 경제)
- **한국 주도 핵심 성과 의제**
  - AI 협력: 지침 원칙 마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AI 생태계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역량 강화를 목표
  - 인구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 대응 협력 이니셔티브 제시, 생산성, 재정 건전성, 사회통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역내 공동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 **주요 토론 분야**
  -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 디지털 경제 통합 전략, 공공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 금융 포용과 구조개혁, 밀의 미래

2025 APEC 경주 핵심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양자협상 선호**
  - 다자주의에 대한 반감
    - "나는 미국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원칙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2017, APEC 연설)
    - TPP 탈퇴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는 '대신 우리는 일자리와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릴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할 것"(2017.1.23)
    - 다자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타협이 수반하여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며, 부강한 국가에 비용 분담을 요구, 트럼프는 인내심, 타협, 비용 부담 중 어느 것도 불수용
  - 양자 협상을 선호
    -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한 협상 방식을 '일괄 쇼핑(one-stop shopping)'으로 묘사하며, 약 70개 국가와 개별 협상을 진행, 이러한 협정들을 '맞춤형(tailored)이지 기성복(off the rack)이 아니다"라고 강변
    - 미국이 보유한 경제, 군사, 규제 우위를 활용한 양자 협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더 큰 양보를 수반하는 거래지향적 성향
  - 미국이 제공했던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에 대한 대가 요구

2025 APEC 경주 핵심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미중 의제(갈등적 협력 혹은 갈등의 지속)**
  - 미·중 간 통상·관세 갈등 국면 속 관세협상
    - 희토류 및 전략광물, 펜타닐과 전구 물질, 농산물 수출입(대두수입), 반도체와 기술 디지털 플랫폼, 지정학적 및 지역질서(한반도와 대만)
  - 다자·디지털 통상 규범, WTO 개혁, AI 규범·표준, 탄소중립·지속가능 가치사슬
- **한미 회담**
  - 관세협상, 안보 협의 등 논의

2025 APEC 경주와 미북회담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미북회담

- **김정은과 개인 친분 강조**
  -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다.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2024.7.18.)
  -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봤고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nuclear power)....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다...그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트럼프, 취임날 집무실 약식 기자회견, 2025.1.20.)
  - "나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한미정상회담, 2025.8.25)

미북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트럼프의 조건 없는 대화 압박**
  - 트럼프의 김정은과 친분과 대화 재개 의사 지속 표출은 일방적 메시지
    -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2018-19년과 같은 조건 없는 대화가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선 철회를 요구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일방적 대화 재개 요구는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압박과 협상의 시작
  - 협상의 뜻이 없는 상대에게 일방적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유화적이 아닌 2017년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압박
  -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 추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확인**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공식 문서로 천명
    - "미일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결심을 재차 확인했다" (미 백악관,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2025.2.7.)
    -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2025.2.15.)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 완전 종식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에 여전히 열려 있다" (백악관, 김여정의 '핵군축' 요구 담화에 대한 반응, 2025.7.29.)
  - 그러나, 대화를 위한 일면 유연한 입장도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백악관, 2025.10.1)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2024년 7, 8월 공화당과 민주당 정당대회 정강정책에서 북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미포함
  -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 상원 인사 청문회, 2025.1.15.)
  - 더불어, 트럼프는 행정부의 공식정책과 상이한 접근도 가능
    - 행정부 2기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어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채택되더라도 트럼프가 반드시 이를 관철하지 여부는 미지수

북한의 대미정책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여전히 진행중인 북한의 '정면돌파전' (2022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 자력갱생, 사상무장, 핵고도화, 장기전
  -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김정은,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 2024.11.21)
  -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요구
    - 조건으로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핵군축회담을 추구, 이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목표
    -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것이다."(김여정,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희망》일뿐이다," 2027.7.29)
    -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며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2025.9.21)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025.10.22)

북한의 대미정책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북한은 신냉전 진영주의를 추구**
  - 북한은 2021년 9월부터 국제관계 구도를 신냉전 진영주의로 규정
  -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8기 11차 전원회의, 2024.12.29)
  - 북한은 2018-19년 미국과 협상에서 원했던 제재 해제라든지 트럼프가 제시했던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편입한 경제발전과는 다른 방향을 추구
    - 북한은 미국, 한국 등 서구와 경제협력을 모색하지 않고, 새로이 재편되는 경제 질서에서 대안 경제 모델을 추구

미북관계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핵군축 추진**
  - 북한은 미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인 국교 수립 등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대관계라는 구조하에 군사 위기관리 혹은 확전 통제 형태의 협의를 선호
  - 한반도 냉전 구도 해체가 아닌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로 하는 협상
  - 핵군축의 의미도 과거 미소 냉전시기 진행되었던 구조화된 진영간 대립 구도하에서 우발적 충돌과 확전을 제한하는 형태를 의미
  -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에 기술된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등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조건

미북관계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단기전망: 소통 채널 복원과 쌍중단 가능성 배제 불가**
  - 미북간 쌍중단 합의 가능성
    -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맞바꾸는 합의 배제 불가
    - 이미 트럼프는 동 사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한국의 방위비분담과 연계하여 남북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 가능
    - 북한도 북한 핵에 대한 '맞춤형 확장억제'로 발전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희망
      - 두 가지 사안은 한미가 제도화해온 확장억제의 핵심 기둥으로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을 이행하는 기제
      - 작년 하반기 이래로 북한 핵에 대한 억제 외에도 대응을 위해 구체적 시나리오에 기초한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으며 2025년 연간 계획 시행 중

미북관계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중장기 전망: 미북 핵합의 도출 난항**
  - 2019년 하노이 공식 미적용
    -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논의한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 신고와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재 해제라는 공식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한 핵타격 능력 제거 추구
    - 트럼프는 최소한도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어야 정치적 승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 가능
      - 북한이 그간 지속 개발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추진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제거
      - 북한이 개발 중인 핵능력 외에도 중장기 발전 경로를 모두 무력화
    - 트럼프의 거래는 합의에 근접할수록 실제 이득을 면밀히 계산
    -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를 최소 수준에서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거래 대상으로 상정

미북관계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북한은 확증보복 능력 지속 추구 필요**
  -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한 핵의 효용성은 대폭 축소
  -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확증보복 능력을 포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에 의해 필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핵사용은 사실상 자살행위
  - 북한 핵의 정치·군사적 의미는 한국을 향한 핵타격 능력 확보로 제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확실한 확장억제를 보장한다면 북한 핵의 효용성 상실
    - 북한이 핵을 한국에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이라는 방어 공약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북한은 한국을 향해 핵사용 불가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북 비핵화 협상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결과 도출 난항**
  - 상호간 협상 공전 기간 북한은 여전히 핵능력 고도화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TOGETHER. TOMORROW. EWHA

종합토론

【토론자】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군사안보연구소장)

【토론문】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1. 경주 APEC의 국제 정치적 의미

가. 아/태 주요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여 아/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역내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의 장

- 주최국 이점을 한국 외교의 역내 위상 제고에 활용

나. 트럼프 2기 정부의 다자주의 경시 경향이 부정적 요인

1) 다자 질서와 규범에 대한 근본적 불신

2) 다자 정상회의에는 빠지고 양자 협의로만 활용

-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양자 협의, 방문을 통해 관심사안에 대한 유리한 협상 도모

3)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대 중국 관계를 관리하는 venue로 활용

다. 역내 경제 통합 심화, 자유/개방/공정무역 등 APEC이 지향하는 비전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 난망

라. 그러나 주최국인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

1) 주최국으로서 유사 입장 중견국들 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이 빠진 공백을 줄이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초를 마련

2) 대응에 실패할 경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작은 이슈에 집중

- 기후변화, 통제되지 않는 신기술, 핵 겨울의 망령 등 인류 전체에 대한 실존적 위협

2.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간 회동 가능성 불배제

1) 과거 판문점 회동 선례와 유사한 짧은 깜짝 만남
2) 마지막 순간까지 보안 유지
3) 성사되더라도 실질적 협의 보다는 미/북 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

나.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전망은 불투명

1) 핵 문제의 종착점에 대한 합의 부재
2) 한/미/일은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원천 배제

다. 중국은 비핵화 원칙 지지하지만 제재에는 신중

1) 북/러 군사 밀착에도 내심 불편
2)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과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모험주의 관리에 긍정적 역할 도모

라. 일본 신임 총리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지역 안보 이슈와 대 미국 동맹관계의 관리 공조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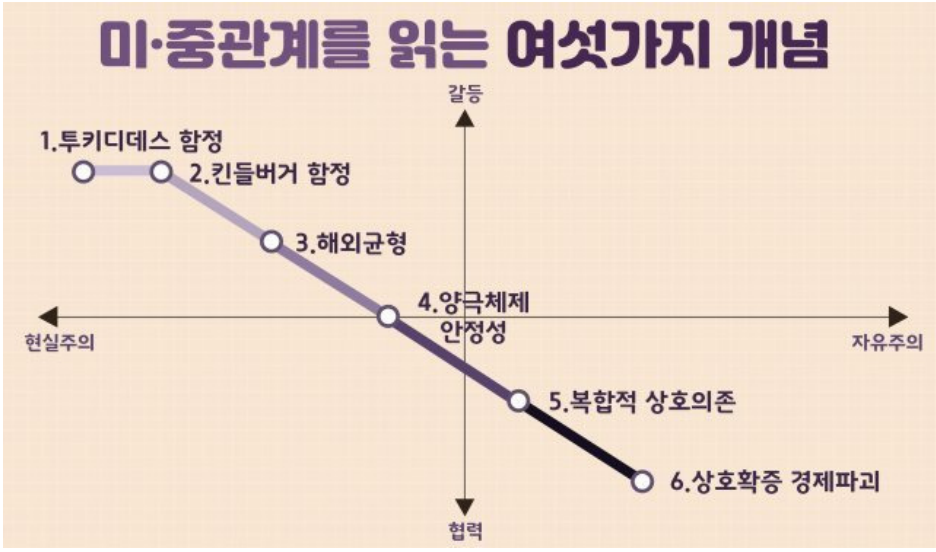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읽는 여섯 가지 국제정치학 이론과 개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북한학 박사)

1. 개요

- 2025년 10월 경주 APEC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특히 관세와 희토류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경제분쟁 양상을 노출하였음. 미·중 전략경쟁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출범 직전부터 시작되었는바, 본 토론문에서는 이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여섯 가지의 국제정치학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섯 가지의 개념을 갈등 대 협력, 정치적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2×2 매트릭스에 배치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음.

2. 여섯 가지 이론과 개념

□ 투키디데스 함정

-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인 기원전 5세기의 투키디데스가 27년 동안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과 전개를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따온 것.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양극체제 하에서 힘이 덜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힘이 더 세질 것을 우려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설명. 힘이 월등한 미국이 2인자로 떠오른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극체제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됨.

□ 킨들버거 함정

- 마셜 플랜의 지적 설계자이자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로 재직했던 찰스 킨들버거가 1930년대라는 재난적 시대의 원인을 떠오르는 강대국 미국과 저무는 강대국 영국의 역할 대체 실패에서 찾은 것에서 나온 설명. 중국의 국력이 커질수록 자신이 혜택을 입은 국제질서에 공헌하기 보다는 무임승차를 할 경우 나타나는 파국적인 결과를 우려할 때 사용되는 비유.

□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이론

- '공격적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지역 패권국가(regional hegemon)인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과정. 이 과정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 및 협력국을 앞세우게 되지만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에 이름.

□ 양극체제의 안정성

- 미어샤이머 교수가 '방어적 현실주의' 로 분류한 故 케네스 월츠 버클리 &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소 냉전 과정에서 약소국가 간의 국지전은 있었지만 양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다며

양극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 그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도 영역을 달리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름.

□ 복합적 상호의존

- 1970년대 상업적 자유주의의 한 흐름에서 나온 이론으로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단위인 국가 이외의 국제정치적 행위자 즉, 국제기구나 기업 노조 등 사회단체 등의 역할을 강조. 특히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이 다뤄야 할 이슈가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강대국 간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함.

□ 상호확증 경제파괴

- 이언 브레머 미 유라시아그룹 회장과 존 헌츠먼 前 주중대사는 2013년 6월 2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제시한 개념.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핵 공포 균형의 논리적 기반이 되었던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경제(Economic)'라는 단어를 넣어 만든 신조어, 미·중 양국이 국제 상품 및 자본 시장에서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단절을 선언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주장임.

3. 현실에 주는 함의

- 2016년 이후 미·중 전략경쟁에는 이상의 여섯 가지 측면이 모두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미·중 갈등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층위에서 각기 진행되고 있는데, 군사적 정치적 층위의 갈등은 현실주의적 갈등의 양상을, 경제적 층위에서는 자유주의적 갈등 및 협력의 양상을 나타내는 상황임.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앞세우고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상호확증 경제파괴'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토론문】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군사안보연구소장)

1. APEC 회의 이후 북미 관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C 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것으로 추정

- CNN 18일 보도
  "도널드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 실제 회담의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와 같은 소통은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1일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뒀다."

- CNN의 임진각 카페 대여, 유엔군사령부의 JSA 견학 일시 중지

- 깜짝 정상회담 무산 후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 어려워지고, 기존 협상 채널이 단절 가능성이 높아짐

- 트럼프 대통령은 핵 동결과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 모색할 수도.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듯.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쓰느라 북한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음

-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긴장도 최대한 높이는 '어게인 2017'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 "우리는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 핵추진잠수함 진수

- 북·중·러 3각 연대라는 뒷배.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의 2인자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화성-20형 지켜봄. 유엔 안보리 결의와 NPT 형해화. 한반도와 주변에서의 영향력 키우려 할 듯
-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화염과 분노' 군사적 압박

- 한반도와 주변 위기감 고조와 정세 악화,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다자토론】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 **백승주 회장** : 박원곤 교수님은 APEC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내용보다도 북한과 불발로 끝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가 불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북미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안목을 보여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오신 김원수 차장님은 UN 사무차장이십니다. 사실 일은 차장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 복잡다단한 UN 사무차장 일을 전문적으로 하여 우리 외교가에서, 외교사에서는 보석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무차장님께서는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인 다자 회담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다루고 우리는 어떤 의미를 챙겨올 것인가, 거기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백승주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시 부상자 리스트에 올랐지만 왔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APEC 그러니까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회의의, 원래 목표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를 2040년까지 완성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다자주의로부터의 후퇴, 글로벌 리더십으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일방주의,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APEC이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에도 가장 중요

한 다자외교의 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좀 역설적입니다.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다 참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 오면 본인이 원하는 정상들을 따로 만나서 내가 원하는 교섭을 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패권 경쟁이 인류 역사에서 쉽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계속될 텐데 그 경쟁을 관리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대해주면 더 좋고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 있게 관리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두 정상이 서로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서 만나기도 어렵고 제3의 장소를 또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APEC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중국이 주최를 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가게 되는 외교의 장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심리전 이런 것은 미중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관리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경에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주도해야 될 중요 국가들이 APEC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돌려보면 APEC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호주로 시작됐지만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서울 회의를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입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PEC은 경제 협력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북한, 대만, 홍콩 그리고 수교 전이지만 중국도 옵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다자외교의 장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간 기구에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대만이나 홍콩이 참여 못 하는 기구가 되고 유엔을 포함해서 그렇죠. 정부 간 협의체에 중국이 오는 거는 APEC이 거의 유일한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저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활용을 했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시기에 APEC을 유치해서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국 주석, 일본 총리도 방문해서 중요한 양자 회담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효용성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반도 안보의 지금 한미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불배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불배제라고 쓴 건 북미

정상회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양쪽이 합의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만나겠다고 하니 반은 된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이 북한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만난다고 하면 한국과 중국도 상당한 부분에 입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그 결정은 미국이 하는데 미국이 50%는 만나겠다는 카드를 던지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이 나머지 50%를 못 맞춘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던진다고 그래서 그냥 덥석 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아직도 하노이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협상을 모든 걸 올려놓고 하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종착점이 뭐냐 그러면 북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평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같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테이블에 넣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종착점을 염두에 두고 교섭을 할 때 테이블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뭘 올려놓을 것이냐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뺀 교섭이 과연 가능할까,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지금 헌법에도 우리는 핵보유국가라고 하고 비핵화는 불가능이다, 배제한다고 그러면 이 종착점도 문제지만 협상의 출발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만나겠다고 이제 북한이 의사 표시를 하면 만날 텐데 만나서 처음에 협상 테이블에 뭘 올려놓을 것이냐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합의가 됐더라도 이행이 되면 처음에는 동결, 감축, 비핵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결해서 감축으로 가고, 비핵화로 가는 게 이제 저희의 3단계, 지금 교섭 원칙인데 비핵화 없이 동결하자, 단축도 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를 배제한다, 이것은 미국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 협상팀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비핵화가 없이 군축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또 하나 나온 것을 인정한 결과가 되는데 그 사실이 중국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일본, 심지어 대만에 그 압력이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입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중국도 한미일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핵 군축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일단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진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자-이스라엘 협상에서도 무엇인가가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행 과정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복해 있다가 암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또 반복되지 않는, 그런데 그 우려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중국도 일정 부분 공유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가 채워져서 북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 앞날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백승주 회장** : 원래 취지대로 자유무역, APEC이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방법으로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자 회담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공통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잘 다루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한민국 정부의 핵 추진, 정확하게 말하면 핵 연료추진 잠수함입니다. 원래 핵잠수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 연료추진 잠수함이 있고 핵미사일 탑재하는 잠수함이 있는데 이것은 핵미사일 탑재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 연료추진 잠수함 건조를 요청한 데 대해서 승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어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한 이철재 기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철재 기자** : 사실 제가 저도 낮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했는데 막상 그저께 또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회장님께서 현명하시게도 저한테 이런 주제를 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다음에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빅이벤트가 열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수많은 외부인을 맞이하면서 한국이 다자외교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19세기 때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전후 질서를 논의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큰 진전은 없고 회의만, 무도회에서 춤만 춘다 했는데 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회의는 춤추지 않았나 합니다. 그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것이 관세 협상 타결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모습이, 발표 내용이 공개가 안 되었고, 벌써부터 좀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관세 협상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시면서 신문 1면 톱기사들이 다 핵잠수함으로 도배가 돼서 이렇게 약간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우려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추진 잠수함을 핵잠이라고 줄이는데 해군에서는 이것이 핵잠이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해서 원자력 잠수함 및 약자인 원잠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핵잠을 많이 써서 핵잠으로 이제 한다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쪽에서 이제 잠수함을 언급했는데 중국 견제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게 먹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핵 잠수함이, 즉 원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미사일 탑재하는 것과 그냥 핵미사일 탑재하지 않는 것, 일반 공격을 이제 공격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에 먹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 한국의 원자력 핵연료 탑재를 허용했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게 이제 오케이(OK) 의사를 나중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일견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 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는 저희 기술로 여러 척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자체 건조를 하고 그동안 이제 큰 문제였던 우리나라 자체 건조 핵잠에 들어갈 핵연료 농축 우라늄이죠.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의미로 제안한 것인데, 트럼프의 말은 아예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을 세 척을 사들이고, 미국과 영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영국과 호주가 같이 핵 잠수함을 생산하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들어가는 원자로는 결국 미국과 영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고농축 90% 이상

의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라늄은 핵무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과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결국은 트럼프가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미국의 통제하에서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던져서 승낙받아서 기분 좋아했는데 결국 찜찜한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또 차세대 잠수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핵잠 건조를 추진할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같이 묶어서 핵 잠수함 공동 건조 프로그램 그러니까 또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건조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싶은데 결국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그런 복선을 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승주 회장** :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기자님이시니까 신문 수만 개 글 보는 것보다 더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각자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될 거다, 우리는 국가의 꿈이 원자력 재처리에 대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적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국가들, 중국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가 제가 잘 짠 것 같습니다. 신석호 박사님, 북한 전문 기자 오래 계시다가 지금 동아일보 경영자로 일하면서 꾸준히 기사도 쓰고 학문적인 논문도 발표하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토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론적으로 APEC이 많은 나라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세계의 어떤 사회 흐름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G2가 만나서 한판 겨루는데 G2가 들어오는 이 결과에 G2의 어떤 여러 가지 세력, 어떤 영향을 줄지를 4개, 5개 함정 이론을 갖고 이렇게 쭉 학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구성해서 한번 발제 논문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신석호 이사** : 저는 이철재 소장님처럼 현장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좀 현장에서 떨어져서 이론적 프레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기여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APEC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내라고 그러셔서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미중 관계를 여러 가지 이용한 개념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앞에 있는 3개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며, 그리고 그 충돌하면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3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취지의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라는 것이 막 제가 말씀드린, 세계 혼란이 올 것이라는 쪽으로 갔다가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APEC을 트럼프가 뭔가 사단을 내려고 하다가 물러섰습니다. 다 지금 유보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후반에 세 가지가 좀 더 지금 점점 더 적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인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중국이 따라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누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1기 출범 전부터 기세등등하게 중국을 다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에 적합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힘이 빠졌을 때,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 나서지 않을 때, 그러면 세계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어서, 세계 경제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 킨들버거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외균형 이론이라고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 한국, 대만 등을 앞세워 어떻게 막으려고 할 텐데 그것은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나서게 될 텐데 그것도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양극 체제의 안정성, 양극 제체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는 방어적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를 넘어서서 자유주의 쪽으로 오면 그게 국가만 게임하냐, 다 기업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NGO도 있고 유엔도 있고 복잡한 그런 그물망 속에서 국제 정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이 미국과 중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디커플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지금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미국도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언 브레머라는 사람이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핵을 들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호 확증 경제 파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양자가 모두 경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잠깐 해당 케이스를 보신 겁니다. 4월에 한 번 관세를 가지고 세게 했더니 바로 반응하는 게 미국의 증시였습니다. 채권값이 하락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딛고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 트럼프의 채권도 많았다는 겁니다. '상호 확증

경제 파괴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 느낌에는 1기보다 2기가 훨씬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또 역사의 어느 계기에는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마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나 역외 균형을 강하게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이 6가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지금 상황은 여기 어디와 있는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근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약간 형식적인 건데 역대로 미북이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는 반드시 북한의 도발, 북한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대화와 공세의 이중 전술' 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강화하는 겁니다. 핵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대한민국하고 대화를, 미국하고 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변하지 않는 패턴인데 지금 APEC을 앞두고는 그런 공세가 없었습니다. 그런 공세가 없는데 트럼프를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협상하고 거래를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만나면 내 의지가 관철되고 그럴 때 만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모호성 이런 것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아직까지 어쨌든 핵 보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은은 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제재를 풀겠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알아버렸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신석호 박사님이 소개한 6개의 이론 모형은 미국과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거기에서 1년간 잠정 휴전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 이론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확증 경제 파괴' 서로가 이렇게 양쪽 경기가 다 파괴되니까 1년간 휴전으로 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를 때 해야 이게 누가 잘하는지 아는데 이게 안 만나기로 결정되고 나니까 안 만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힘을 얻습니다.

(Q&A)

▣ **백승주 회장** : 오늘 우리 찬조 출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MBN에 유명 앵커를 했던 정광재 앵커가 잠시 전쟁기념관 앞에 들렀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APEC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있다가 결과 끝나고 나서 한번 맞춰봅시다.

▣ **청중(정광재 앵커)** : 안녕하세요. 제가 전쟁기념관을 한번 둘러보려고 왔는데 이런 포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일종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언젠가 만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 정당은 그러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을 때 보수 정당은 어떤 메시지를 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박원곤 교수님은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박원곤 교수** : 트럼프도 그렇고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조차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4년 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고 어떤 노력 비핵화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았고 그때 기억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정상회담 할 때 기자 중에 한 명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카메라를 보더니 헬로(Hello)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켰는데 억제력입니다. 군사적 억제력 그리고 여전히 뭐라 뭐라 해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그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

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징조가 보이거나 실제 발사를 하거나 혹은 발사 후에 정말 미국 본토를 타격하면, 다음에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복 응징이라고 하는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또 한 차례의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2차 타격 능력이라고 합니다만 북한은 그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상대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없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골든돔이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 체제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사일 방어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면 북한 미사일은 쉽게 막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뜬금없이 '핵실험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핵의 현대화 작업을 1기 때부터 시작했고 바이든도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핵,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핵으로 우리가 흔히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저위력 핵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중에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를 끝내놨습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가 북한을 만난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수 정부 입장, 이건 보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과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서 이제 현재의 동맹을 단순하게 북한의 전면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 재래식에 대한 대응보다는 북한의 핵에 대하는 핵 동맹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핵무장이라든지 혹은 저위력 핵을 한반도에 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둘 다 불가능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확장 억제를, 우리 한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발전시켜야 하는 거고 그 바탕 위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든 아니면 한국 정부가 뭘 하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확실한 전제로 이러한 핵 동맹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아까 우리 김원수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아주 정확한 로드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억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와 여전히 외교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입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박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위험을 관리하는,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옵션도 거의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옵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을 미국의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이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 때 미국 군축 대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련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소련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핵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그 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훨씬 어려웠던 겁니다. 그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걸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옵션도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 한국, 일본에서 핵무장 여론이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옵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면 중국도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북한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가 나오면 좋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덜 나쁜 옵션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이 대화를 하면서 위험을 관리하지만 비핵화 목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로 보이지만 그 끈을 놓는 순간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항상 가장 덜 나쁜 옵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두 분 답변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정광재 앵커님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심플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바빠도 김정은 만나기 전에는 우리 정부와 충분히 사전 의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고 김정은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 하노이 회담을 앞

두고 스티븐 비건이 대표를 맡았는데 비건이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자주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비건은 정말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노이 가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만, 트럼프와 우리 정부에게 패싱 당하지 않는 모습,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한국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 지도자들이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트럼프 욕 좀 하고 싶지만, 하면 미국에 못 갈까 싶어서 저도 사실 잘 안 합니다만, 트럼프에게 요구할 것은 북한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의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고 또 북한에게도 또 나쁜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철저히 조율하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동아에 녹취, 정리될 예정입니다.

제11회 KWO 나지포럼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5년 10월 31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서원주, 이재헌, 송미경, 이정선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